

2026. 2. 23.(월)

2026년 3월

2026년 3월 경영전략회의 울산 주요 산업 동향



(재)울산테크노파크

울산 자동차 산업 주요 동향

□ 총평

2026년 울산은 단순한 제조 도시를 넘어 '지능형 모빌리티 허브'로 진화하고 있음

□ 2026년 현재 주요 동향 (현황)

- [생산 및 수출 동향 : “트리플 성장“의 견인차] 2026년 1월 한국 자동차 산업은 생산, 내수, 수출이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하는 '트리플 증가'를 기록. 그 중심에는 국내 최대 생산 기지인 울산이 있음
 - 생산량 확대 : 전국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.1% 증가한 36만 1,000대를 기록. 울산 공장은 조업일수 증가(설 연휴 이동)와 하이브리드(HEV) 모델의 풀가동 체제에 힘입어 가동률이 정점에 도달
 - 수출액 역대 1월 2위 : 1월 자동차 수출액은 60억 7,000만 달러로,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85.5% 급증하며 성장을 주도 (* 수출액 역대 1월 1위 : 2024년 1월 62.1억 달러, 사상 최초 1월 60억 달러 돌파, 친환경차 수출 본격화)

- [울산 EV 전용 신공장 본격 가동 및 신차 효과] 2026년 1분기는 울산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임
 - EV 전용 공장 양산 개시 : 현대자동차의 울산 EV 전용 신공장이 1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. 이는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에 건설된 국내 완성차 공장으로서, 연산 20만 대 규모를 자랑함
 - 제네시스 GV90 생산 : 신공장의 첫 번째 양산 모델인 제네시스 플래그십 SUV 'GV90'이 글로벌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음. 이는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의 수출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분석됨

□ 글로벌 통상 환경과 울산의 대응

-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울산의 수출 경쟁력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
 - 대미 수출 선전 :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(15% → 25%) 압박 등 통상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, 1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9.2% 증가. 이는 울산에서 생산되는 SUV와 친환경차에 대한 북미 시장의 강력한 수요를 입증함
 - EU 시장 공략 : 유럽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한 친환경차 수출이 34.4% 증가하며 시장 다변화에 성공

울산 화학 산업 주요 동향

□ 정책동향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('26. 1월)
 - 울산 남구 지정 완료로 고용안정 선제 대응 체계 마련 (고용노동부, 2026.1.7.)
-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특별법 기반 산업 재편 추진
 - '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이하 석유화학특별법)'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('25.12.2)
 - 공급과잉 품목 감산 및 사업 전환 유도 (산업통상자원부, 2026년 초)
- 화학산업 고부가 전환 지원 R&D 사업 기획 ('26년 상반기)
 - 범용 제품 중심에서 고기능성 소재로 전환 가속화 (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, 2026.1.11)

□ 인프라 구축 현황

- 울산 석유·화학 AX 실증산단 구축 ('25.9~ '28.12)
 - 총 사업비 290억원 투입,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 실증
 - 산업 특화 버티컬 AI 모델 개발 및 산단 내 확산
- S-OIL 사힌 프로젝트 완공 임박 ('26. 6월→시운전→12월 상업가동 계획)
 - 총 9.2조원 투자, 국내 최대 석유화학 복합시설
 - 생산능력 : 에틸렌 180만톤, 프로필렌 77만톤 확보

□ 산업 및 기업 동향

- 석유화학 3대 단지 고용위기지역 지정
 - 울산, 여수, 대산 등 주요 거점 모두 지정 완료
- 주요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가속화
 - 16개 주요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계획서 정부 제출
 - 한계 설비 가동 중단(감산) 및 기업 간 합종연횡 활발
- 울산항 물동량 회복세 전망
 - '25년 1억9,700만톤 → '26년 2억100만톤(7년만에 2억만톤 재탈환 예상, KMI)
- 주요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
 - 대한유화 : '26년 영업이익 1,901억원 전망 (전년비 215%↑)

울산 조선 산업 주요 동향

□ 정책동향

- 美 트럼프 행정부, ‘미국 해양 행동 계획’ 발표
 - ‘25. 4월 발표한 ‘미 해양 지배력 회복’ 행정명령 후속 이행 성격
 - 주요내용 : 조선 역량 재건, 조선·해운 인력양성, 산업생태계 보호 및 수요 창출, 경제안보 및 산업 회복탄력성 지원 등
 - 당장 대형 선박 건조 능력이 부족한 미국 현실을 감안해, 동맹국 조선소가 계약 초기 물량을 자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

□ 주요 기업 동향 : HD현대중공업

- HD현대중공업, 올해 수주 29.6조·매출 24.4조 목표
 - ‘25년도 수주실적 : 18.4조원으로 목표치인 18.2조원을 상회
 - ‘25년도 매출실적 : 17.6조원, 전망치였던 15.7조원 대비 11.7% 높음
- 수주현황
 - 라스카비나아 탱커스(그리스)와 ‘4만~5만5000DWT급(2,800억원) 규모 석유화학제품선 4척 LOI 체결(1.30.일자)
 - 코친조선소(인도)와 1만7000TEU급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6척 건조 계약을 체결(2.19.일자)
- 지멘스, HD현대 ‘미래 첨단 조선소’ 프로젝트에 디지털 백본 제공
 - HD현대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
 - 공정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발생하던 비효율과 오류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* Siemens Xcelerator(지멘스 엑셀러레이터) :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
- 방사청,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 경쟁 입찰 절차 착수
 - HD현대중공업, 한화오션과 7.8조원 사업권 놓고 입찰경쟁
 - * KDDX(한국형 차기 구축함)는 한국의 경하 배수량 7,100톤급 구축함

울산 수소 산업 주요 동향

□ 총평

- 시장 관점 : 글로벌시장은 보조금 경쟁과 대규모 인프라 가동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진입하였으며, 국내 역시 탈탄소 전환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핵심 기술(고효율 수전해, CCUS)의 실증과 상용화가 병행되는 단계
- 생태계 관점 : 울산은 생산, 활용(인프라, 모빌리티) 바탕으로 수소 생태계 구축과 탄소중립 거점화가 가속화 되는 상황

□ 국내 동향

- [정책] K-GX(한국형 녹색 전환)¹⁾ 전략 및 제도 정비
 - 전략 수립 : '26년 상반기 K-GX 전략 수립을 통해 탈탄소 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며,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 및 수소 혼·전소 발전을 추진하여 청정수소 역량 강화
 - 제도 지원 : 고비용 수소환원제철 및 CCUS²⁾ 유도를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(CCfD)³⁾ 도입 검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「수소사업법」 제정 추진
- [산업, 기업] 앵커기업 중심의 상용화 가속
 - 생산 :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착공 및 PEM 수전해 국산화 추진, 고려아연(아크에너지)의 그린메탈 전환을 위한 수소 도입 가속
 - 저장·운송 : 한택 CCUS용 압력용기, 수소탱크 개발 등 수소인프라 포트폴리오 확대
 - 활용 : 현대차 트랙터 상용화 검증, 현대중공업 수소혼소 엔진 실증 및 힘센 엔진(100% 수소)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
- [기술] 소부장 연계 및 핵심 기술 고도화
 - R&D 방향 :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연계를 강화하는 패키지형 과제 추진
 - 분야별 기술 : (생산) 대용량(MW급) 수전해 및 탄소포집형 생산, (저장) 액화수소 BOG⁴⁾ 저장, (활용) 잠수함, 지게차, 굴착기 등 중대형 모빌리티 적용 확대

□ 향후 전망 및 시사점

- 단기 전망 : 실증 → 상용
 - ① 고체 수소저장 등 저장방식 다양화 기술개발을 통해 수소 건설산업기계 개발 및 상용화 가속화
 - ② 수소-암모니아 혼소 발전 및 수소연료전지 비상 발전시스템 등 수소 발전기 개발로 분산형 발전 시대 기반 마련
- 중장기 시사점 : 주력산업 탄소 중립화 거점 확보
 - ① 수소 해상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대중소 협력체계 구축 및 인프라, 인력 양성, 연구개발 사업 확보
 - ②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암모니아 수요공급 플랫폼 구축 추진

1)K-GX : Korea-Green Transformation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감축을 비용이 아닌 신성장 동력(수소, 이차전지 등)으로 활용하는 전략 (주관 및 추진 부서 : 기후에너지환경부, 2025.11월 정책 비전 공개)

2)CCUS : Carbon Capture, Utilization and Storage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격리하는 기술

3)CCfD : 정부와 기업이 특정 탄소 가격을 사전에 약정하고, 향후 시장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

4)BOG : Boil-Off Gas 액체수소가 외부 열 침입으로 기화된 가스

울산 이차전지 산업 주요 동향

□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동향

- LFP 등 보급형 이차전지 수요확대에 따른 중국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
 - (이차전지 시장)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'20년 563억 달러에서 '23년 1,210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, '30년 3,726억 달러 성장 전망
 -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'24년 상반기 이차전지 판매는 80.6GWh를 기록하여 22.2% 차지하고 있으며, 일본 기업 4.4%, 중국 기업이 64.7%, 기타 8.7% 점유
 - 삼성SDI는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높은 17.9%(16.3GWh)의 성장률 기록
- 글로벌 시장 변화 원인 분석
 -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삼원계 이차전지와 LFP 이차전지가 양분하고 있으나, LFP 이차전지 성장세가 뚜렷
 - * (LFP전지) '20년 15% → '25년 47%, (NCM전지) '20년 66% → '25년 49%,
 - * 최근 삼성 SDI(울산 준비중), LG엔솔(미국 양산, 오창 준비중), SK온(미국 조지아 준비중)
 - 양분된 보급형 전지와, 현세대 고성능 전지 시장 확대 및 차세대(Na-ion, 전고체) 이차전지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치열
 - 국내 업체는 급성장세의 LFP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LFP & LMFP(고전압 LFP) 양산 준비 및 대체 소재로 저가 NCM계인 하이망간 NCM(LMR) 소재를 적용한 전지 상용화 추진 중

□ 울산 이차전지 산업 분석

- 울산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분석
 - (일반현황) 울산은 '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중 출하액 기준 1위, 부가가치 기준 1위를 기록하며 이차전지 산업 주요 거점 역할을 수행
 - (매출현황) 울산지역 이차전지 산업은 출하액 기준 '19년~ '22년 중 73.1%의 급격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지역산업 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
 - 하지만, 울산지역 이차전지 산업은 '23년 이후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라 성장률 정체 현상을 예상하고 있음
 - 현재 배터리 주요 수요분야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본격화되고 캐즘구간에 진입되어 배터리 산업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
 - * AI 산업 확대에 따라 AI 데이터 센터용 ESS산업의 급격한 성장 예상